

오피니언

기고



김병수

새해 다짐에 관한 단상

않을까 싶다. 아쉬움을 깊이 물어두는 것은 아쉬움을 달랠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다짐을 풀을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어떤 다짐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 다짐은 내년에 지을 농사의 씨앗과 같다고 하겠다. 따라서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아니 된다는 생각이다. 다짐이 너무 크면 몸 고생, 마음 고생만 뿐 제대로 품지를 못하여 후회를 있어야 한다. 또한 다짐이 너무 작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언제 물을 주었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를 잊기 십상이다. 그런 까닭에 너무 큰 다짐도, 너무 작은 다짐도 아닌 다질만한 다짐을 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